

터뷰

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

“미세먼지 저감, 근원적 대책 마련 위해 노력”

**물 위주뿐만 아니라 대기질도 개선
경·부·울, 다른지역보다 오염높아
재난상황 준하는 관리 행정력 집중**

“미세먼지 저감은 지역 환경정책의 핵심현안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.”

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급증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.

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. 물 위주 관리에서 나아가 미세먼지의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선 것이다.

신 청장은 “미세먼지는 국가간, 지역간 발생원 및 규모의 차이와 기상·대기흐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에 지방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”라며 “낙동강청에서는 관내 배출원 특성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국가-지방간의 상호교역할을 통해 근원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



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분포는 중서부권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절풍, 대기정체, 지형적 요인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. 이와 반대로 경·부·울 지역은

하절기에 타 지역 대비 높은 농도를 보이는 데, 지난해 7월 해당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국 상위 4위권 내에 포함되는 등 동절기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. 특히 경남지역은 VOC 배출량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편(2위)이며,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도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일 정도로 오염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.

신진수 청장은 “타 지역 대비 공단, 행만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VOC배출량이 높은 온도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미세먼지로 전환,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그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”며 “낙동강청에서는 미상저감조치시 차량2부제, 자동차 운행제한, 사업장 관리 등 재난상황에 준한 총력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낙동강청은 평소 사업장 배출원 관리를 위한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원, 첨단기술(드론, IoT측정망 등)을 활용한 공단지역 등 오염 우심지역의 관리 등 산업계 배출원 관리

위주의 대책을 증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.

그는 “국가적으로는 국제공조에 의한 기후 변화 대응 등 거시적 대책이 중요하겠지만 지역적으로는 직접 배출원, 즉 사업장, 자동차, 생활성 연소 등 인위적 배출원의 전반적인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필요하다”고 역설했다.

신 청장은 “고농도 발생(비상저감조치 등)시 도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공공·민간 부문의 적극 참여,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단계적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. 낙동강청은 지자체와 공조해 일상속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노력의 지역 체질화를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며 “고농도시 최소한도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배출량의 자발적 저감노력, 차량 2부제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, 일반 시민들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의 준수 등 생활 속 실천에도 협조를 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이우수기자 eunsu@annnews.co.kr

(28.6*15.2)cm